

대두, 남미지역 풍작에 시장암울...

남미 대두 생산량 12-14% 증가 ... 공급경쟁 치열에 플랜트 폐쇄까지

미국의 대두(Soybean) 프로세싱 시장은 공급 타이트 및 대두박(Soybean Meal)의 수요약화가 분쇄(Crush) 마진을 압박함에 따라 2003년에도 수익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며 남미의 풍작으로 미국의 세계 시장비중 및 대두수출이 감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대두분쇄는 미국내의 공급량 감소 및 해외 프로세서들과의 지속적인 경쟁으로 수익이 저조한 상태이며 대두박용 사료의 수익이 약화된 점 또한 원인이 다. 그러나 남미의 수확량이 유효해지고 미국내 대두박의 감소추세가 하절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익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Salomon Smith Barney에 따르면, 북미의 분쇄마진은 2002년 4/4분기에 전년대비 49%가, 전분기대비 25%가 감소했고 현재 Bushel당 30센트 중간 범위이며 수익감소에 직면한 대두 프로세서들은 분쇄율의 절하 및 일부 프로세싱 설비의 중지가 불가피했다.

ADM(Archer Daniels Midland)의 경우 플랜트 폐쇄를 비롯해 오하이오주 Fostoria, 캔자스주 Freedonia, 아칸사스주 Little Rock, 사우스캐롤라이나주 Kershaw, 일리노이주 Quincy 및 조지아주 Valdosta 플랜트의 가동량을 감축해 분쇄율을 낮췄다.

ADM의 대두분쇄 생산능력이 10-14% 감소함에 따라 미국의 대두분쇄 생산능력도 2.5-3.5%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북미의 유지 및 대두박 공급량의 감소가 대두분쇄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Bunge 또한 인디애나주 Morristown의 대두 프로세싱 플랜트의 증설을 연기했다. 돼지고기 및 가금류 고기 산업의 수익약화 및 남미의 작물수확이 미국의 내수 및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것은 무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가동률의 저하가 미국 대두 프로세싱의 수익감소를 막기엔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두 분쇄량은 2002/03 판매연도 동안 4900만톤으로 2001/02년의 5060만톤보다 3%가 감소했는데 대두박의 수출량 및 미국내 소비량이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대두 분쇄량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남미의 풍작으로 공급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미국의 대두박 수출량 전망치가 600만톤으로 하향조정된 반면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량은 2002/03년 970만톤으로 증가하고 분쇄율은 230만톤으로 1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브라질의 대두작물은 2002/03년 예측 생산량이 4900만톤으로 2001/02년의 4350만톤 비해 큰 변화가 없으며 분쇄율 또한 2650만톤으로 100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의 대두 프로세싱 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현지에서 미국의 주요 농업관련 기업들이 생산량 확대에 나섰다. ADM은 브라질의 Mato Grosso주 소재 Randonopolis Mill의 대두 분쇄능력을 배로 확대할 계획이며 Cargill은 이미 Goias주의 대두 분쇄플랜트에 약 6000만달러를 투자했다.

Bunge 또한 분쇄 및 정제능력을 확대하기 Rio Grande do Sul의 Passo Fundo 소재 Bertol SA의 분쇄 및 정제 통합플랜트에 대해 4년만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플랜트의 하루 분쇄능력은 1200톤이며 석유정제 및 패키징 설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분쇄마진은 2003/04 판매연도 대두 공급의 개선여부에 따라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두 프로세싱 사업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는 남미로부터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인데 남미의 대두 생산량은 2003년에도 12-1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